

일본 경제 동향_2015년 6월

(일본판, 4차 산업혁명 본격 시동)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회복 속도 둔화	2
2. 무역수지 적자 지속	6
3. 엔저가속·고주가·고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회복	11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일본판, 4차 산업혁명 본격 시동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수입 감소에 의한 대일 무역적자 축소	16
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큰 폭 감소	19
V. 참고 자료	20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
2. 주요 경제 일정	22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4	2/4	3/4	4/4	1/4	3월	4월	5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08.9	111.0	-
GDP증가율(연율,%)	1.6	△0.1	4.4	△6.8	△2.0	1.2	3.9(p)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66.0	69.5	21.4	16.3	17.7	16.2	20.4	-	-
		23.0	24.5	6.6	4.2	5.2	7.3	7.2	-	-
해외직접투자(조엔)		13.2	12.6	2.6	2.0	2.1	4.9	3.5	0.9	1.0
소비자물가 상승율(%)	전기비 전년동기비	0.4	2.6	0.2	2.3	0.3	△0.1	△0.3	0.4	0.3
실업율(%)		4.0	3.6	3.6	3.6	3.6	3.5	3.5	3.4	3.3
수출(조엔)		69.8	73.1	17.5	17.6	18.3	19.8	18.9	6.9	6.6
수입(조엔)		81.3	85.9	22.4	20.2	21.2	22.1	20.4	6.7	6.6
무역수지(조엔)		△11.5	△12.8	△5.0	△2.6	△2.9	△2.3	△1.4	0.2	△0.1
경상수지(조엔)		3.3	2.6	△0.9	0.3	1.7	1.4	4.2	2.8	1.3
환율	달러	97.7	105.8	102.8	102.1	104.0	114.3	119.1	120.4	119.6
	원화(100엔)	1,123	996	1,039	1,008.2	987.3	950	923.3	924	911
금리(10년물,%)		0.72	0.55	0.63	0.60	0.53	0.44	0.34	0.38	0.33
주가(닛케이)		13,651	15,460	14,958	14,655	15,562	16,660	18,226	19,198	19,768

주: (p)는 2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회복 속도 둔화

- '15.4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1.0으로 전월비 2.1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상승

- '15.4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

□ (무역수지) 무역수지, 2,160억 엔 적자로 적자폭 확대

- '15.5월 수출은 5조 7,405억 엔, 수입은 5조 9,564억 엔

□ (환율) 엔저 가속

- '15.5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20.7 엔으로 전월비 0.9% 엔저

* '15.5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05원으로 전월대비 0.7% 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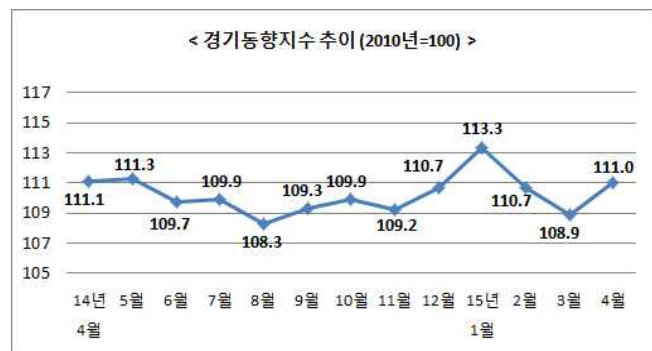
1. 경기회복 속도 둔화

□ (경기기조 판단)

- 전반적으로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계속하고 있으나 수출 부진과 함께 생산이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 속도는 둔화
 - ‘15.4월의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100)가 111.0로 전월보다 2.1p 상승함에 따라, 일본 내각부의 경기기조 판단은 전월과 같은 개선으로 판단
 - 경기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지표 중 생산과 출하 관련 지표를 비롯한 8개 지표가 플러스
 - 그러나 일본 내각부가 발표하는 경기위치조사에 의하면, 경기체감도를 나타내는 5월의 현황판단지수는 저하

□ (전 망)

- 당분간은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전망
 - 고용 및 임금소득의 개선과 함께 유가 하락, 경제대책의 효과 등이 설비투자과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전망
 - 수개월 앞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전월보다 1.2p 상승
 - 수출은 중국 등 일부 신흥국의 경기감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과 엔저기조의 정착 등 수출환경 개선으로 완만한 증가기조로 회복될 전망
-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의 축소경향으로 설비투자 주도의 성장시나리오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자료 : 내각부

<GDP>

□ '15.1분기 GDP 성장률은 3.9%로 상향 수정

- '15.1분기 실질 GDP성장률의 2차 속보치는 전기비 1.0%, 연율 환산으로는 3.9%로 1차 속보치(전기비 0.4%, 연율 환산 2.4%)에 비하여 상향수정
- 소비세율 인상 후 침체된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외에, 특히 기업수익의 개선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활성화, 주택투자의 플러스 반전 등이 고성장예 기여
-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1.1%p, 외수(수출-수입)는 0.2%p
 - 개인소비는 1차 속보치와 같은 전기비 0.5% 증가: 주가상승과 임금인상 기대에 따른 소비마인드의 개선이 소비회복에 기여
 - 설비투자는 전기비 0.4%에서 2.7%로 상향 수정: 엔저에 따른 기업수익의 개선으로 설비투자증가 기대, 주택투자는 전기비 1.7% 증가
 - 수출은 1차 속보치와 같은 전기비 2.4% 증가: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GDP통계에서 수출로 포함되는 방일외국인의 상품구입 증가가 수출증가에 기여
 - 수입도 1차 속보치와 같은 전기비 2.9% 증가: 내수 회복에 따라 수입량도 증가
-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전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할 전망
 - 2015년에는 엔저기조의 정착에 의한 수출환경 개선과 유가하락의 영향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최소한 플러스 성장은 가능할 전망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p)
전기비	1.6	△0.1	1.1	△1.7	△0.5	0.3	1.0
전기비연율			4.4	△6.8	△2.0	1.2	3.9
전년동기비			2.4	△0.4	△1.4	△1.0	△0.9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국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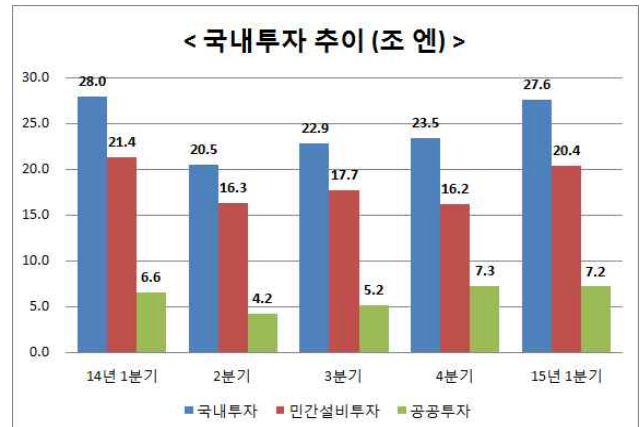
□ ‘15.1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는 전기비 실질 1.6% 증가

○ 명목기준으로는 17.3% 증가

□ (민간설비투자)

○ ‘15.1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6.1% 증가한 20.4조 엔, 국내 투자의 74.1%를 차지

○ 일본 내각부는 투자에 대한 기조판단을 4개월만에 회복으로 상향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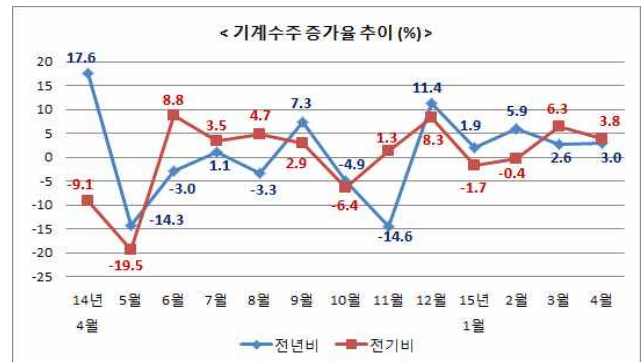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향후 엔저기조의 정착, 유가 하락 등을 경으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생산 및 기업 수익 회복 등에 의해 투자의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

- ‘15.4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3.8% 증가

- 엔저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기업의 유턴에 의한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공공투자)

○ ‘15.1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4% 감소한 7.2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5.9%를 차지

○ ‘15.1분기의 공공투자가 감소한데 이어 4월의 공공공사 수주액과 5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도 크게 줄고 있어(각각 전년동월비 44.4% 감소, 14.0% 감소)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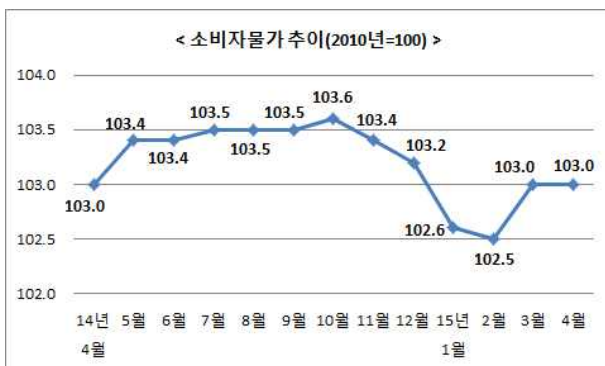
□ '15.4월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상승

- '14.4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3.3으로 전월비 0.3% 상승,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엔저에 의한 수입비용 상승이 물가상승에 기여
- 전년 동월 대비로도 0.3% 상승했으나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코어코어 CPI)은 제로 수준
- 향후 엔저에 의한 수입비용 상승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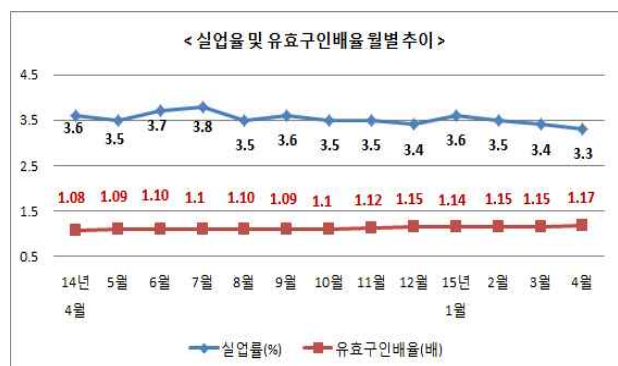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의 개선상황 유지

- '15.4월 완전실업률은 3.3%로 전월보다 0.1%p 저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 1997년 4월 이후 18년만에 낮은 수준으로 완전실업자수가 전월보다 2만명 감소
 - 이직자 수도 기업들의 활발한 구인활동으로 전월보다 4만명 감소
- '15.4월 유효구인배율은 1.17배로 전월보다 0.02p 상승, 23년 1개월만에 높은 수준
 - 교육·학습지원업·의료·복지 관련 신규구인수요가 크게 증가
 - 일손 부족현상이 계속되면서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적자 지속

□ (총 합)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 ‘15.5월 무역수지는 2,160억엔 적자, 3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후 2개월 연속 적자
 -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
 -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6,499억엔에서 4,037억엔으로 대폭 축소된 한편,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759억엔에서 3,816억엔으로 축소
 -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 등을 배경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
- 향후 엔저지속에 따른 수입비용 상승 및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물량의 증가 가능성 등에 비추어,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

< 2015년 5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5.4월			2015.5월			2015.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6	8.0	-4.3	5.7	2.4	-12.4	31.2	7.2
수 입	6.6	-4.2	-1.5	6.0	-8.7	-9.1	33.0	-8.1
수 지	-0.1	-93.5	-	-0.2	-76.5	100.0	-1.7	-75.0

자료 : 재무성

□ (수 출) ‘15.5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전월보다 크게 감소

- ‘15.5월 수출은 5조 7,405 엔으로 전월비 12.4% 감소, 전년동월비로는 2.4% 증가
 - 수출 물량도 전월비 12.5%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3.8% 감소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원동기 대신에 플라스틱이 포함된 가운데, 5대 품목 모두 전월비 수출이 감소
 -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감소가 두드러져, 각각 22.2%, 19.8% 감소

- 특히 자동차의 對중국 수출이 부진, 전월비 7.8%, 전년동월비로는 44.1% 감소
- 자동차의 해외생산이 증가한 점도 자동차 수출의 부진 원인

< 2015년 5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엔, %) >

순위	품목	2015.4월			2015.5월			2015.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9,791	7.2	-3.4	7,613	0.2	-22.2	45,661	8.0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298	11.5	-0.3	3,190	11.8	-3.3	15,651	11.7
2	철강	3,222	5.3	-12.7	3,031	-6.7	-5.9	16,484	2.5
4	자동차부품	3,163	2.0	2.3	2,537	-1.7	-19.8	14,243	2.3
5	플라스틱	2,106	2.4	-6.9	1,985	-1.1	-5.7	10,236	5.9

자료 : 재무성

- 주요 수출상대 지역·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감소
 -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20.3%로 가장 크고, 이어 한국, ASEAN, EU, 중국 순으로 수출 감소폭이 큼
 - 對 한국 수출은 12.9% 감소

< 2015년 5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엔, %) >

순위	국가	2015.4월			2015.5월			2015.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3,629	21.4	-1.1	10,861	7.4	-20.3	62,352	16.4
2	중국	11,213	2.4	-6.7	10,607	1.1	-5.4	53,140	1.5
3	ASEAN	9,977	7.5	-7.1	8,752	2.3	-12.3	48,936	11.5
4	EU	6,393	0.8	-9.3	6,022	0.4	-5.8	32,238	4.0
5	한국	4,806	7.1	-5.4	4,185	-0.7	-12.9	23,176	3.7
6	대만	3,676	1.8	-7.5	3,703	9.5	0.7	18,232	6.7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5.5월 수입도 감소폭 확대

○ '15.5월 수입은 5조 9,564억엔으로 전월비 9.1% 감소, 전년동월비로도 8.7% 감소

- 수입 물량도 전월비 8.4% 증가, 전년동월비로도 5.3% 감소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의류 및 동 부속품 대신에 통신기가 포함된 가운데, 모두 수입이 감소

- 유가에 연동된 액화천연가스의 수입감소폭이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4.8%로 가장 크며 이어 의약품, 원유, 반도체 및 전자부품, 통신기 순으로 감소폭이 큼

< 2015년 5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엔, %) >

순위	품목	2015.4월			2015.5월			2015.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7,309	-34.6	0.0	6,455	-31.7	-11.7	35,144	-43.4
2	액화천연가스	4,191	-35.0	-32.5	3,154	-44.1	-24.8	31,928	-3.9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2,466	6.1	-8.5	2,196	0.6	-10.9	12,385	-1.1
4	통신기	2,111	12.8	-16.2	2,109	51.3	-0.1	11,259	8.8
5	의약품	2,422	28.6	7.7	2,014	8.1	-16.8	10,466	14.3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5년 5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엔, %) >

순위	국가	2015.4월			2015.5월			2015.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5,972	2.5	16.1	14,423	1.5	-9.7	78,510	0.7
2	ASEAN	9,676	-0.8	-11.2	8,572	-10.0	-11.4	50,649	-1.9
3	미국	7,141	23.9	-7.8	6,824	11.5	-4.4	34,025	11.5
4	EU	6,745	1.2	-4.8	6,611	1.1	-2.0	33,463	-2.1
5	호주	3,765	-11.8	1.7	3,021	-22.9	-19.8	18,806	-10.6
8	한국	2,885	5.3	3.8	2,785	-0.7	-3.5	14,049	-4.8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 중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19.8로 가장 크고, 이어 ASEAN, 중국, 미국, 한국, EU순으로 감소폭이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3.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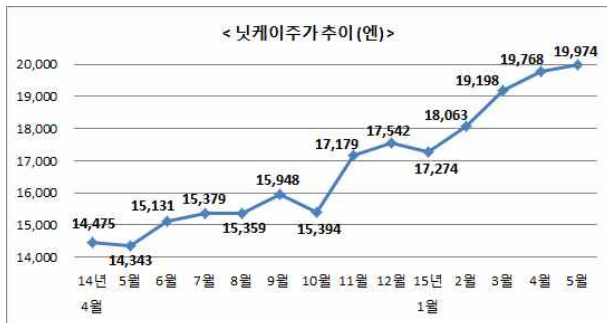
3.엔저가속 · 고주가 · 고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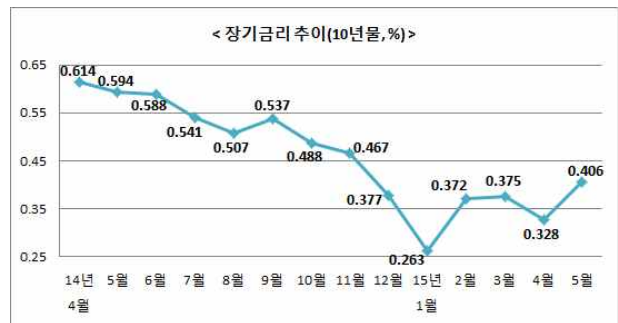
- ‘15.5월 평균 주가는 엔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0% 상승한 19,974엔
- 6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00엔대를 유지, 6월23일 기준 20,809엔

□ (금 리)

- ‘15.5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해외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24.2% 상승한 0.41%
- 6월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0.54%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 6월 23일 기준으로는 0.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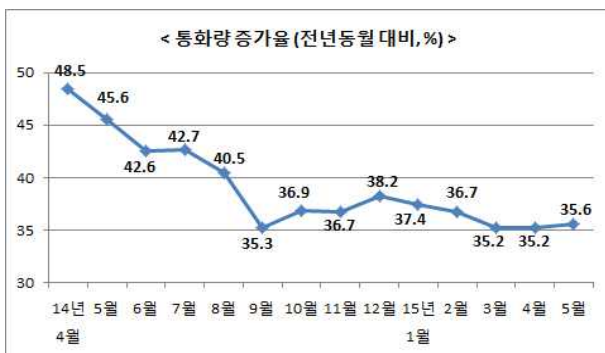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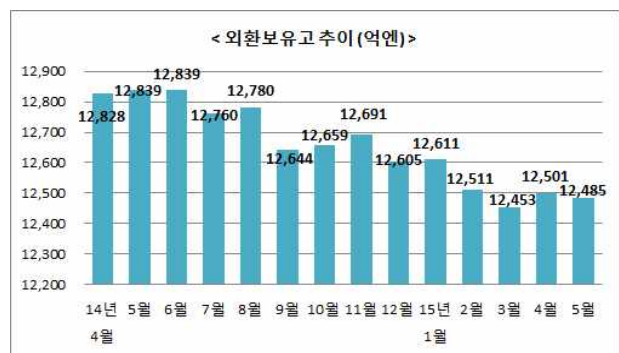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5.4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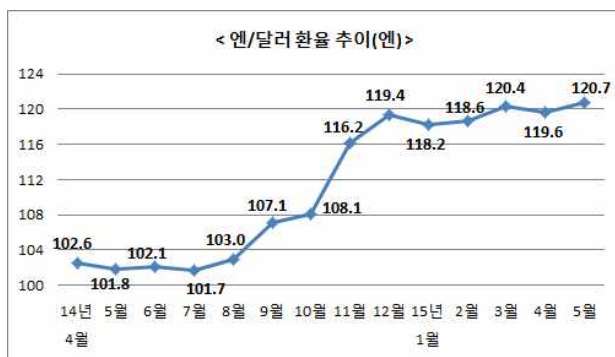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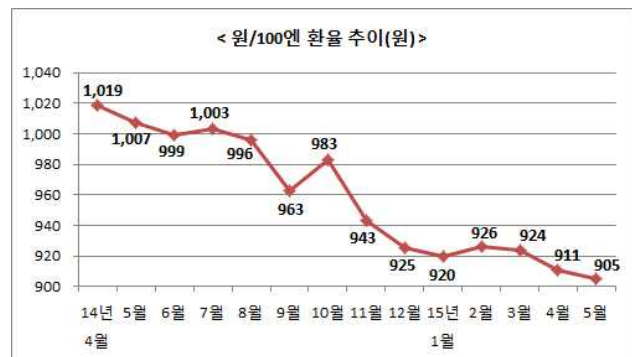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5.5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보다 0.9% 상승한 120.7엔(엔저)
- 6월 들어서도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등으로 125엔대까지 엔저가 가속한 이후, 6월 23일 기준 123.62엔
- 당분간은 미·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 ‘15.5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05원으로 전월의 911원에 비하여 0.7%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회복

□ **(동향)**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급증이 증가세 회복에 기여

○ '15년 4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조엔으로 전월비 8.4%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엔, %) >

		2013	2014	2014		2015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금 액		131,946	125,929	14,552	13,570	11,901	13,833	9,244	10,023
증가율	전기비	34.9	-4.6	-4.0	-6.7	-12.3	16.2	-33.2	8.4
	전년동기비	34.9	-4.6	192.3	-22.2	-5.6	113.3	28.2	-51.3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유럽 지역의 투자는 증가, 아시아. 북미는 감소

○ 유럽과 대양주 지역의 투자가 크게 증가

○ 아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의 투자는 감소

- 대한 투자는 51% 감소한 반면, 대중 투자는 33.5% 증가

- 대미 투자는 63.4% 감소

< 일본의 주요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엔,%)>

	2014년		2015.3월			2015.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25,939	-4.6	9,244	16.2	-33.2	10,023	8.4	-51.3
아시아	37,617	-4.3	2,432	-27.2	-19.5	-1,098	-	-
중 국	7,150	-19.3	964	6.2	122.1	1,287	33.5	204.3
한 국	3,328	3.7	285	85.1	-31.9	140	-50.9	-24.7
북 미	46,264	1.2	3,857	-56.5	149.1	1,440	-62.7	-90.3
미 국	44,365	3.3	3,809	-57.0	170.1	1,393	-63.4	-90.0
중남미	7,710	-22.1	1,254	5,866.7	-	2,367	-59.6	83.8
유 럽	26,310	-16.7	1,160	53.8	-42.0	6,310	443.9	270.9
대양주	5,963	1.2	278	2.9	-74.0	660	137.4	35.5
중동	527	-	70	-84.4	438.0	97	38.6	-
아프리카	1,539	205.4	192	40.1	-	248	29.2	-31.9

자료 : 일본 재무성

□ **(특징)**

○ 2015년에도 M&A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엔저 속에서 자산지소형 해외직접투자와 생산거점형 해외직접투자 모두 일본 국내로 유턴하는 사례가 증가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일본판, 4차 산업혁명 본격 시동

1. 4차 산업혁명의 추진기구, IVI(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 발족

□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이란 독일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공장의 제조 장치와 부품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혁신적인 모노즈쿠리를 목표
- 일본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고 일본정부의 지원도 본격화
 - 미쓰비시전기 등 30여개 기업들이 컨소시움을 결성하여 공장들을 연결하는 기술의 표준화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규격화도 목표

□ 계열을 초월하여 기업간 연결

- 이번에 발족한 인더스트리얼 밸류체인 이니셔티브(IVI: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에 미쓰비시전기 외에 후지쯔, 닛산자동차, 파나소닉 등 전기, 정보, 기계, 자동차 분야의 주요기업들이 참가
 - 제조업의 IT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호세이대학 니시오카 야스유키(西岡靖之) 교수가 사령탑을 맡음
 - 공장과 공장, 설비와 설비를 연결하는 통신규격과 보안기술의 표준화를 논의
- 일본기업들은 종래, 자사 및 계열 내 기업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계열과 업종을 초월하여, 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인터넷으로 연대하는 장치를 구축

□ 미쓰비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 민간 기업에서 미쓰비시전기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
 - 로봇이나 제어기기 등 공장자동화(FA)에 필요한 장치를 전부 갖추고, 스마트폰 관련 공장을 중심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미쓰비시전기는 2003년부터 e 팩토리를 표방하고 각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
 - 기계음이나 진동의 미묘한 차이로 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유능한 기술자들이 고령화로 줄어든 것이 배경
 - e 팩토리는 IT로 숙련기능의 재편을 목표로 한 시스템인데, 시험 도입한 미국 인텔의 반도체공장에서는 이상 유무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형 사고를 방지, 연간 약 9억 엔의 경비를 절감
- 미쓰비시전기 나고야제작소 관계자는 “각종 기기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방지 등 과제도 많아, 민관이 얼마나 힘을 합칠 수 있느냐가 관건”

2. 4차 산업혁명의 목표

□ 공장간 연대에 의한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을 목표

- IVI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장간 연대는 구체적으로 독일 모델임
 - 독일에서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정보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제품의 수발주에서 부품조달, 생산, 배송, A/S에 이르기까지 공정을 동기화(synchronization : 동시에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사건을 일치시키는 것)시키는 것을 목표
 - 이것은 조업 및 재고의 손실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제조업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방대한 정보를 빅 데이터 기술로 분석, 인공지능(AI)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음
 - 공장들은 항상 서로 대화하고, 소량다품종생산에서도 손실을 없애고 대량생산과 같은 효율을 낼 수 있음

- 일본은 대량생산방식에서 세계 표준을 구축한데 이어,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을 차기 목표로 설정

□ 규격의 표준화도 부수적인 목표

- IVI는 규격의 표준화도 겨냥
 - 독일은 이미 산관학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2020년까지의 산관학 로드맵을 발표, 금년 봄에는 독자적인 통신규격과 센서, 제어기기 등 전용기기도 발표했는데 그 대부분이 독일제임
 - 규격을 장악하면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 일례로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하는 폭스바겐을 들 수 있음
 - 외국자동차 업체 가운데 중국시장에서 최대 시장점유율을 가진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본격화하는 경우, 합작선인 중국자동차 업체를 비롯하여 관련 부품업체, 금융회사들도 폭스바겐의 생산·거래구조에 편입될 가능성이 큼
 - 이에 일본의 부품, 기계업체 등도 비용을 들여 대응하지 않으면, 거래에 참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

□ 동료 규합, 팀웍 구축도 매우 중요

- 그러나 민관 합동의 올 저팬(All Japan)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역으로 일본기술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지적
 -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독일의 유력기업은 제조업의 인터넷활용을 추진하는 미국에도 접근, 규격 제작에 참가
- 자동차, 기계 등과 같은 제조업은 현재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업계 질서도 크게 변할 수 있음
-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과 신흥국의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공장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전개하는 등, 지역과 규모의 대소, 업종의 울타리를 넘어 세력판도가 변화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규격경쟁보다는 동료들 규합하고 팀워크 구축하는 것이 중요
 - 해외 표준화단체에 참가하여 정보를 수집하면서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사업을 일으킬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인터넷을 구사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 기술이 핵심
 - 자동운전이나 로봇기술과 마찬가지로 기술진보가 빠름
 -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방식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

3. 일본정부의 지원

- 아베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의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방침을 담음
 - 2015년중 산관학 협의회를 설치하여 산관학이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 IT를 사용하여 일본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의 전략을 검토하고, 정부예산의 중점 연구 분야를 결정하여 2016년도부터 연구를 개시
- 경제산업성도 2015년판 모노즈쿠리백서에서 1/4에 가까운 페이지를 4차 산업혁명관련 내용으로 할애하고 IIVI도 지원할 방침
 -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강조하면서,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일본의 모노즈쿠리도 역전될지 모른다는 지적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수입감소에 의한 대일 무역적자 축소

□ (중 합)

- ‘15.5월 대일 무역적자는 1,166백만달러로, 전월에 비해 722백만달러 축소
 - 대일수입이 17.9%나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수입이 빠르게 줄면서 대일 무역적자 규모도 축소되는 불황형 적자
-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1%에서 5.5%로 높아진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3%에서 9.7%로 크게 저하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7.9%에서 7.5%로 저하

< 2015년 5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5.4월			2015.5월			2015.1-5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379	-12.4	11.1	2,340	-13.5	-1.6	11,103	-18.5
대일 수입	4,268	-12.7	-2.6	3,505	-19.0	-17.9	19,830	-11.6
무역 수지	-1,888	-283	-354	-1,166	-456	-722	-8,727	-81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5.5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1.6% 감소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5. 4월	-12.4	11.1	-8.0	-8.1	-4.2	1.5
2015. 5월	-13.5	-1.6	-10.9	-8.4	-8.7	-9.1
2015.1-5월	-18.5	-	-5.7	-	-8.1	-

- 동 기간 중 총수출은 8.4% 감소했고, 일본의 수입도 9.1%나 감소한 점에 비추어, 대일 수출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 '15.5월 대일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순위변동과 함께 광물성 연료와 전자부품만이 대일 수출이 증가

- 특히 광물성연료의 대일수출증가율이 25.2%로 두드러짐

-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농산물의 대일수출감소폭이 -18.0%로 가장 큼

< 2015년 5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 목 명	2015.4월			2015.5월			2015.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 계	2,379	-12.4	11.1	2,340	-13.5	-1.6	11,103	-18.5
1	광물성연료	306	-33.3	50.0	383	-20.0	25.2	1,553	-44.8
2	산업용전자제품	327	15.3	64.3	307	0.7	-6.1	1,261	3.1
3	철강제품	251	-26.3	-5.3	243	-28.8	-3.2	1,260	-28.7
4	전자부품	186	-10.7	-14.3	187	-8.8	0.5	958	-7.7
5	석유화학제품	128	-10.4	25.5	120	-6.6	-6.2	564	-9.3
6	정밀화학제품	121	-3.0	-1.6	119	-7.7	-1.7	574	-8.4
7	금속광물	99	-15.2	20.7	99	1.1	0	436	-1.2
8	수송기계	99	-3.6	-9.2	95	-7.6	-4.0	500	-7.1
9	기계요소공구·금형	85	-7.4	1.2	78	-19.7	-8.2	393	-14.9
10	농산물	95	4.2	13.1	77	-12.3	-18.9	414	-8.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5.5월 대일 수입은 전월비 17.9%의 큰 폭으로 감소

- '15.1~5월 대일 수입도 11.6%나 감소하여 불황형 무역적자에 일조

- 이는 엔저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입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수입선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일본의 제조업 유통현상과도 맞물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5. 4월	-12.7	-2.6	-17.8	-1.9
2015. 5월	-19.0	-17.9	-15.4	-4.4
2015.1~5월	-11.6	-	-16.0	-

○ '15.5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수송기계와 정밀기계 등 2개 품목만이 대일 수입이 증가

- 대일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대일수출감소폭이 -29.7%로 가장 크고, 이어 정밀화학제품, 철강제품, 전자부품 등의 대일수입이 20% 이상의 감소폭을 보임

< 2015년 5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5.4월			2015.5월			2015.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 계	4,268	-12.7	-2.6	3,505	-19.0	-17.9	19,830	-11.6
1	석유화학제품	476	-4.7	4.8	458	0.3	-3.8	2,165	-11.0
2	철강제품	560	-27.3	2.9	439	-38.4	-21.6	2,590	-27.4
3	전자부품	541	4.8	4.6	431	-8.4	-20.3	2,496	1.6
4	정밀화학제품	365	-11.4	-4.2	262	-21.5	-28.2	1,616	-11.8
5	기초산업기계	269	-16.4	-2.5	241	-17.3	-10.4	1,269	-15.7
6	수송기계	200	-15.4	-6.5	211	-2.3	5.5	1,042	1.2
7	플라스틱제품	209	-19.5	-0.5	186	-22.9	-11.0	999	-17.1
8	산업용전자제품	263	-3.9	6.5	185	-18.9	-29.7	1,088	-12.0
9	산업기계	197	-12.0	-7.1	158	-23.9	-19.8	855	-11.3
10	정밀기계	249	1.1	-27.0	156	-31.0	7.3	1,295	1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큰 폭 감소

□ (동향) '15.1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

- '15.1분기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89백만달러로 전기비 66%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17.5% 감소
-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원인과 관련하여, 엔저 외에 2분기 연속 큰 폭의 증가에 대한 반작용 영향도 있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3년		2014		2014.2분기		2014.3분기		2014.4분기		2015년.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352 (21.3)	2,488 (-7.5)	80 (-19.2)	403 (-46.0)	72 (-10.0)	489 (21.3)	103 (45.1)	850 (73.8)	85 (-17.5)	289 (-66.0)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2,463 (-5.6)	19,003 (30.6)	583 (2.1)	5,272 (4.1)	563 (-3.4)	4,484 (-14.9)	746 (32.5)	4,185 (-6.7)	558 (-25.2)	3,555 (-15.1)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일 기업간 협력사례)

- 소프트뱅크가 한국 온라인쇼핑몰 쿠팡에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발표(2015. 6.16. 경향신문)
 - 지난 1998년 이후 일본 기업의 한국기업 투자로는 사상 최대 기록
- 베어링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일본의 NSK와 TKG사가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 지역에 2,600만달러를 투자, 자동차용 니들베어링과 자동차용 압축밸브공장을 각각 설립 예정(2015.5.21. 헤럴드경제)

□ (시사점)

-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에 대한 예의주시와 함께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5.5월~2015.6월)

□ 국내 기관

- 『한일 수교 50년, 대일 무역 평가와 과제』 국제무역연구원, 2015년 6월18일
<http://iit.kita.net/>
- 『고비 넘긴 아베노믹스 관심의 초점 세 번째 화살로』 LG경제연구원, 2015년 6월17일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LGBI1358-32_20150617125126.pdf
- 『일본 철강업, 정부 정책 지원으로 날개 다나?』 포스코경영연구소, 2015년 6월17일
https://www.posri.re.kr/report/view/board_id/2278/page/
- 『[일본경제연구회]일본 에너지정책 선택의 비전과 과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6월4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57>
- 『[동향분석]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2015.6월)』 한국은행, 2015년 6월4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7098&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일본 (나고야 KAPP)』 KOTRA, 2015년 5월29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1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nolink
-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와 엔저의 향방』 LG경제연구원, 2015년 5월28일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pub/JapanInsight_2015_5_20150528100154.pdf
- 『최근 엔화, 유로화 약세의 수출기업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15년 5월28일
<http://iit.kita.net/>
-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 5월 28일
<http://www.kiep.go.kr/skin.jsp?page=1&num=185646&mode=view&field=&text=&grp=publication2&bid=Pub0301&ses=USERSESSION&psize=10>

□ 일본 기관

- 『일본의 수익력 창출연구회 보고서』 경제산업성, 2015년 6월19일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kaseguchikara/pdf/report01_01_00.pdf
- 『2011년 일본 산업연관표』 일본 총무성, 2015년 6월17일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data/io/2011/io11.html
- 『제조업의 국내회귀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가』 도레이 경영연구소, 2015년 6월12일
http://www.tbr.co.jp/pdf/report/eco_g040.pdf
- 『2015년판 모노즈쿠리 백서』 경제산업성, 2015년 6월11일
http://www.meti.go.jp/report/whitepaper/mono/2015/honbun_pdf/index.html
- 『경제산업행정의 조직관리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2015년 6월10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5fy/000374.pdf
- 『경제금융사회환경의 중장기적인 세계적 조류와 일본의 과제; 환경에너지·안전보장·도시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조사』 2015년 6월10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5fy/000375.pdf
- 『일본의 수출구조 분석; 무역대국, 중국 출현의 영향』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5년 6월6일
<http://www3.keizaireport.com/report.php/RID/246708/>
-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활동규모에 관한 조사』 일본 내각부, 2015년 5월30일
<https://www.npo-homepage.go.jp/uploads/kigyou-chousa-houkoku.pdf>
- 『2015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경제산업성, 2015년 5월28일
<http://www.meti.go.jp/press/2015/05/20150527003/20150527003.html>

2. 주요 경제 일정

<6월 실적>

일자	주요내용
1	• 경제재정자문회의(총리실)
	• 국련 기후변동에 관한 실무회의(~11일까지, 독일)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장기에너지 수급전망 소위원회(경산성)
2	• 필리핀 대통령 일본 방문(~5일까지)
3	• 필리핀 대통령 국회 연설
	• OECD 각료이사회(~4일까지, 파리)
4	• WTO 비공식 각료회의(파리)
5	•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회장 기자회견
6	• 중일 재무대화(3년 2개월만의 개최, 베이징)
7	• G7 정상회의(8일까지, 독일)
8	• IAEA(국제원자력기관) 정기이사회(12일까지, 빈)
	• 사카키바라 경단련회장 기자회견
	• '15년 1분기 GDP개정치 발표(내각부)
	• 4월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10	• 원자력 규제위원회
17	•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투표 가능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19	• 구로다 일본은행총재 기자회견
22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서울, 도쿄)
	• 경제재정자문회의(총리실)
	• 산업경쟁력회의(총리실)
	• 사카키바라 경단련회장 기자회견
23	• 태평양전쟁 오키나와전쟁 종전 70년
24	• 수산물 WTO 양자 협의(제네바)
26	•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총무성)
	• 5월 완전실업률 발표(총무성)
	• 5월 유효구인배율 발표(총무성)
28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7월 8일까지, 독일)

<7월 예정>

일자	주요내용
4	• 디메콩지역 국가들 정상회의(도쿄)
7	• 제9회 UIC세계고속철도회의(10일까지, 도쿄)
10	•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도쿄)
27	• 제22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31일까지, 서울)
월내	• TPP협상 12개국 각료회의(합의 가능성 높음)